

# 무단 방치 전동킵보드 견인 조치 나선다

##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현실화

### 전주시, 시민 안전사고 예방 위해 안전 이용 위한 종합대책 추진... 9월부터 견인·운영 회사 견인료 부과

전주시가 전동킵보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킵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가 전동킵보드의 급속한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단 방치 전동킵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동킵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전북대학교 인근 1개사, 1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에서 올해 6월 현재 전주지역에만 3개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킵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킵보드를 횡단 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킵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찰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전주시가 전동킵보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킵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전동킵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

동킵보드 안전지킴이단(40명)을 운영해왔다. 또, 신고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는 정비방과 킵보드 운영사에 처리 요청하는 신고방으로 이원화했다.

여기에 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킵보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킵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견인된 전동킵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킵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치된 전동킵보드 불편 신고는 '전주시 전동킵보드 불편신고방'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킵보드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주차하는 킵보드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재료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직영 번호판제작소의 적자 폭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09년 3월 전주시번호판제작소(직영)이 개소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발급 수수료의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요금에 달랐던 페인트식 보통번호판과 대형번호판이 9,000, 13,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일원화돼 인상된다.

필름식 번호판과 전기자동차 번호판도 각각 3만 원과 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도내 타 시군 민영 번호판 제작소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시가 이처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은 그간 직영 번호판제작소가 적자운행을 감수하며 저렴하게 유지해오며 도내 시·군별 발급 수수료 격차로 인해 전주시로 자동차 등록·이전 민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원 쉼터 현상은 전주시 차

량등록과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도내 타시군 번호판 제작소 경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적자분은 전주시에서 보전해주었다고 밝혔다. 15년 동안이나 민원을 고려해서 인상을 안하고 있다다가 그 보전액수가 한계에 다다르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차후로는 번호판의 재료값 등을 고려해서 적절 시기에 인상을 정례화하는 것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반발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게 발급 수수료 원가산출영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 인상 내용을 제출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왔으며, 최종적으로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번호판제작소 경영수지 개선 및 도내 시군별 번호판 수수료 격차 문제점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로 쏠려있는 도내 자동차 등록·이전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진안지역 읍 단위 노인회장 선거에 금품 살포 의혹 '눈살'

### 진안읍 노인회장 선거 의혹 제기

진안지역 읍 단위 노인회장 선거에서 금품이 뿌려졌다는 소문이 퍼다해 더운 날씨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진안군 진안읍 노인회장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L모씨는 투표권이 있는 각 마을 회장(전체마을 77개), 수심명에게 10만원씩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익명을 요구한 S모 회장은 지난 27~28일 오후 8~9시쯤 L모씨가 휴대폰으로 마을로 갈 테니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집 밖으로 나갔는데, L모씨가 이번 회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약수를 하는데 손에 5만원권 두 장을 쥐어 줬다는 것.

또 다른 회장 P모씨도 "27일 오후로 기억 되는데 L모씨가 마을로 갈 테니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약수를 했는데 10만원을 쥐여 주면서 회장선거에서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S모씨와 P모씨 등은 시골 정서상 아무리 좋은 공익적인 신고나 제보라 할 지라도 주위의 비난을 받을 있으니, 비밀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약속하고 난 후 취재에 협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 5일 전부터

의심받는 후보의 휴대폰과 각 노인회장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각 마을에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는 CCTV를 점검하면 금품 선거는 영원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모씨는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어느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입을 닫았다.

/진안=우태만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3일 장애인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 이전 신축 현장을 점검했다.

### 전주시설공단, '숙련된 자체 전문인력 활용'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안전 점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숙련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 풍수해와 태풍 등의 여름철 자연 재난을 대비해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기계와 전기,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해당 직무로 36개월 이상 근무한 숙련된 인력들이 이번 점검에 참여했다. 공단은 재난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시설물(건축, 토목) △기계, 가스 △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점검표를 만들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자전거점정장, 완산체육공원, 아중체육공원, 승미장, 솔내체육공원 등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건축물과 부대 시설의 구조부 손상 여부, 지반침하 등에 관한 안정성, 석축 옹벽의 균열과 전도 여부, 배수로와 집수정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작업

자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쉼터, 휴식 공간 제공 상태 등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상태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사안은 즉시 보수를 실시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선 보수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재난 안전 점검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취약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이라며 "궁극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장애인거주시설 금선백련마을 신축 이전 현장 점검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 의원)가 13일 장애인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 이전 신축 현장을 점검했다.

이남숙 위원장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금선백련마을 신축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 점검 및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청취 등 전

반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또 의원들은 이날 공사장 내 단차발생으로 인한 석축 설치 및 비산먼지에 따른 주변 펜스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